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동향 분석*

— 장쩌민 시기와 후진타오 시기의 저자 키워드연결망 비교

서 상 민**

<목 차>

1. 서론
2. 키워드 연결망분석방법과 분석대상
 - 2.1 저자키워드 연결망분석
 - 2.2 분석대상 데이터의 수집과 추출
 - 2.3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 데이터 수집과 추출
3.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 키워드 연결망분석 결과
 - 3.1 전체 네트워크 구조와 키워드 그룹
 - 3.2 장쩌민 시기 저자키워드 연결망
 - 3.3 후진타오 시기 저자키워드 연결망
4. 결론

1. 서론

국제정세의 거대한 변곡점에 선 중국외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서도 보이듯 지역적 차원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외교안보 및 발전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외교정책과 전략의 변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중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 그리고 외교정책이 생산되고 투입되는 과정에 대해 과거 사회주의 시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화 시대가 본격화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09-362-B00011).

** 국민대학교 HK연구교수

되면서 외교의 행위주체가 다양화되었다. 외교는 이미 외교관의 전유물인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엘리트나 외교관료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 지식인, 싱크탱크, 기업연구소, 이익단체, 지방정부, 기업 등 참여 가능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¹⁾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특히 다양한 행위자들 중에서 외교안보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계의 역할은 점차 강조되고 있고 참여의 범위와 폭이 넓어지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화 길에 들어서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역할이 커지면서 국제관계학이나 군사안보학 관련 중국지식인들이 정책좌담회, 정책연구, 논문발표, 정책자문 등을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런 지식인 그룹이 제안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외교안보 관련 학계의 연구와 정책결정과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의 외교안보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독립 영역을 구축하고 정책결정의 투입과정(input process)에 참여하는 유형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민사회를 길항적 관계(antagonistic relations)로 상정하고 있는 서양의 인식과는 달리 중국은 당-국가체제라는 독특한 국가-사회관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길항적, 대칭적이기 파악하기 보다는 “국가 중심적” 성격을 갖는다.²⁾ 이렇듯 양 영역 간 관계성은 정책지식의 투입과 산출과정 그리고 피드백 과정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바꾸어 말해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정책결정체계”를 통한 정책지식의 투입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용이한 수단이

1) Linda Jakobson and Dean Knox,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0); Yufan Hao and Hou Ying, *Chinese Foreign Policy Mak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s1 (2009)

2) Timothy Brook and Michael Frolic, eds. *Civil Society in China* (ME Sharpe, 1997), pp.46~67.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분석 시기는 과거 장쩌민(江澤民) 시기와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이다. 그리고 분석하려는 대상은 두 시기 중국사회과학인용색인(CSSCI)에 등록된 저널의 ‘한중관계’ 관련 연구논문의 키워드이다. 각 논문에 기입되어 있는 키워드를 연결망분석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함으로써 동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관련 지식의 투입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이 직접 작성한 ‘논문 키워드’는 저자가 논문의 핵심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거나 논문이 어떤 영역에 속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지식사회에서 학술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3~2012년 중국의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저자키워드의 시기별 특징과 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중국의 외교정책의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키워드 연결망분석방법과 분석대상

2.1 저자키워드 연결망분석

지식생산과 지식의 확산과정을 밝히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시공간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작업이다.³⁾ 그동안 연구자의 연구현황 분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활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양적 방법 중 하나는 논문의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논문과 논문사이의 관계의 형태를 추적하거나 인용자와 피인용자의 학술영역

3) 김용학·유소영, <한일 비교 연구의 비교: 인문사회 분야 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45:1(2013), p.29.

에서의 소통을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⁴⁾ 또한 인용관계를 통해 특정 연구자가 생산한 지식을 다른 연구자에게 전달하고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인용은 지식확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⁵⁾ 텍스트분석(text analysis)와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방법 역시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연구방법이나 주제에 대해 분석에 필요한 기준 하에서 이에 합당한 논문의 빈도수를 양적으로 계산하여 논문과 논문의 관계를 밝혀내는 방법이다.⁶⁾

인용 연결망 분석이나 내용분석과 함께 지식의 흐름과 확산을 파악하는 또 다른 양적 방법 중 하나가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키워드 연결망 분석'(author keyword network analysis) 방법으로 이는 저자가 작성한 키워드들 중 동시출현(Co-occurrence)한 논문과 논문 간의 관계 그리고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연결망을 분석하여 해당 지식 생산과 흐름의 구조를 파악한다.⁷⁾ '키워드'(노드 node)라는 단어와 단어 간, 또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링크 link)를 사회연결망분석(SNA) 방법을 통해 규명하는 분석법이다,

인용분석과 내용분석이 개별 논문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는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저자키워드 연결망 분석방법은 키워드라는 매개를 통해 묶여지는 다수의 논문들의 관계망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특정 연구의 흐름과 범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연결망으로 사회를 파악한다는 것은 단지 분석

4) Ronald E. Rice, Christine L. Borgman, and Byron Reeves. Citation Networks of Communication Journals, 1977-1985 Cliques and Positions, Citations Made and Citations Received,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5.2(1988), pp.256~283.

5) Howard D. White and Katherine W. McCain. Visualizing a Discipline: An Author Co-citatio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1972-199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9.4(1998), pp.327~355.; 김용학·김영진·김영석, <한국 언론학 분야 지식 생산과 확산의 구조>, 《한국언론학보》 52. 1(2008), pp.117~140.

6) Carl W. Roberts,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s from Texts and Transcrip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7); 최영철·박수정,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2011), pp.123~138

7) Lee Pei-Chun and Su Hsin-Ning, Investigating the Structur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search through Keyword Co-occurrence and Social Network Analysis. *Innovation* 12.1 (2010), pp.26~40.

의 방법만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결망 분석은 일종의 사회분석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를 개체의 의식과 행위의 단절성과 고유성만을 강조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적 시각”(individual perspective)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체이든 개체가 다른 개체와 관계맺음을 통해 형성된 구조적 특성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론적 ‘관계론적 시각’(relational perspective)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관계론적 시각은 사회가 개체와 개체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집합적 특징을 넘어선 전혀 다른 사회적 성격과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연결망체계”(complex network systems)임을 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키워드 연결망 분석의 기본 가정은 연구공동체 또는 지식사회가 일정한 거대한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연결망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개별 연구자와 연구자 사이의 인과관계나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특정 분야의 지식생산과 확산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이 틀이다. 이는 연구자 개인이나 한 논문만의 관계를 탐색하는 미시적 분석이나 그 연구자나 논문이 어떤 전체 사회의 맥락에서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시적 분석을 결합한 ‘중범위 수준의 분석’ 방법론으로써 미시-거시 분석방법으로는 완전히 해석되거나 이해하지 못한 개인과 전체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 방법론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키워드 연결망 분석은 키워드라는 매개를 통해 복합적인 지식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키워드 분석방법은 “키워드 데이터 수집단계(data collection stage) → 데이터 정제 단계(data refining stage) → 연결망 구성 단계(network construction stage) → 커뮤니티 분석 단계(community analysis stage)” 거치게 된다.⁹⁾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연구대상이

8) Mustafa Emirbayer, Manifesto for a Relation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1997), pp.281~317.

9) Choi Jinho and Hwang Yong-Sik, Patent Keyword Network Analysis for Improving

되는 논문들의 범위를 정한 후 각 논문에서 사용된 저자들의 키워드를 추출한다. 그렇게 하여 수집된 키워드 중 각 논문의 저자가 동일한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한 유사어들을 하나의 동일어로 변환시키는 단계를 거친 다음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한 논문 간의 관계망을 키워드 간 관계망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키워드 연결망 내에서 키워드 간 군집구조 분석하여 키워드 간 상대적 연관성 정도 및 전체 연결망 상에서의 각 키워드의 중심성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밟는다.¹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특정 키워드들이 형성한 연구경향과 함께 키워드와 키워드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역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키워드 특정 연구영역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지를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그 연구영역에서의 연구주제와 중심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연구의 흐름과 확산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중국 지식사회에서 한중관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논문에 수록된 저자키워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저자가 직접 기입한 키워드는 그 논문의 주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소개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논문과 그 논문의 키워드는 고정된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이 논문이 다른 논문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키워드라는 고리를 통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를 사회연결망분석 용어로 해석한다면 논문과 키워드 간에는 ‘논문과 키워드 관계’라는 2-모드(2-mode) 연결망이 존재하는데 이를 ‘키워드와 키워드’라는 1-모드(1-mode) 연결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드 전환을 위해서는 키워드 대 키워드라는 매트릭스(matrix)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키

Technology Development Efficienc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83 (2014), pp. 170~182.

10) 고재창·조근태·조윤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술경영의 최근 연구동향>, 《지능정보연구》제19권 제2호(2013), pp.101~123.

워드와 키워드 간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논문들이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논문들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논문에서 한 번 밖에 출현하지 않는 키워드는 다른 논문과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키워드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1회 출현하는 키워드는 전체 키워드 연결망 내에 편입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키워드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생성된 키워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연구주제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가능하다. 이 들 키워드들은 기존의 주류 지식생산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과 방향에서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도전적이며 실험적인 연구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분석대상 데이터의 수집과 추출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CNKI(中國知網)에 수록된 논문들 중 중국사회과학 인용색인(CSSCI: Chines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中文社會科學引文索引)¹¹⁾으로 분류된 학술지에서 주제어 검색을 통해 1993년부터 2012년 12월까지¹²⁾ ‘한중관계’와 관련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CSSCI는 난징대학교 중국사회과학연구평가센터(南京大學 中國社會科學研究評價中心)에서 저널의 영향력, 피인용 총수 등의 정량지표와 함께 각 학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매년 저널을 심사하여 선정된다.¹³⁾

11) 2015년 현재 CSSCI에 등록되어 있는 정치학 관련 저널은 총 32종이다. 世界經濟與政治、當代亞太、政治學研究、東北亞論壇、外交評論(外交學院學報)、公共行政評論、現代國際關係、江蘇行政學院學報、國際問題研究、歐洲研究、國家行政學院學報、美國研究、中共中央黨校學報、國際政治研究、國際觀察、理論探討、探索、國際論壇、台灣研究集刊、上海行政學院學報、理論與改革、俄羅斯中亞東歐研究、北京行政學院學報、太平洋學報、德國研究、日本學刊、行政論壇、東南亞研究、理論探索、南亞研究、南洋問題研究、理論學刊。中國知網(<http://www.cnk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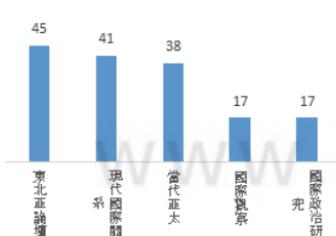
12) 분석대상 시기 20년은 장쩌민(江澤民) 집권 10년과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10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양 시기를 비교분석할 수 있다.

13) 南京大學校 中國社會科學研究評價中心(<http://cssrac.nju.edu.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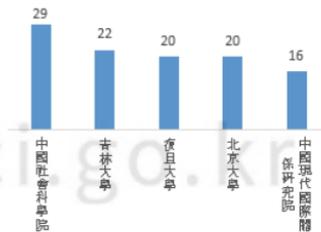
이 색인에 포함되어 있는 저널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들을 ‘조선핵문제’, ‘조선문제’, ‘북조선’, ‘한중관계’, ‘한미관계’, ‘한반도문제’, ‘한반도통일’ 등의 ‘중문 주제어(主題語) 검색으로 검색하여 분석대상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검색된 논문의 총수는 총 899편이었다. 조선핵문제와 관련된 논문은 총 237편이 검색되었고, 한반도문제는 200편, 한중관계 186편, 조선문제 136편, 한반도통일 54편의 순이었다. 이 중 중복된 논문은 제외하고 정치학 영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관계를 다룬 논문만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경제, 문화, 사회, 역사, 한국국내정치 등과 관련된 논문은 분석대상에 제외하였고, 외교안보분야이지만 일본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연구 역시 제외하였다. 두 번의 추출과정을 거친 후 총 285편의 논문이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추출된 논문들의 저널명을 조사하여 한중관계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주요 저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1>와 같이 285개의 논문 중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동북아논단(東北亞論壇)》으로 총 45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15.8%를 차지하였고, 《현대국제관계(現代國際關係)》에 41편(14.4%), 《당대아태(當代亞太)》에 38편(13.3%)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 밖에 《국제관찰(國際觀察)》, 《국제정치연구(國際政治研究)》에 각각 17편(6.0%)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위의 5개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총 158편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55.4%에 해당한다. CSSCI에 등재되어 있는 정치학 관련 저널 수만 하더라도 32종인데, 앞의 5종 저널에 ‘한중관계’ 관련 논문들이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그림1> 주요저널 게재 논문 수(편)



<그림2> 저자 주요 소속기관(명)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285편의 저자가 속해 있는 주요 소속기관 분포를 보면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소속 저자의 수는 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린대학(吉林大學) 22명, 푸단대학(復旦大學)과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이 각각 20명, 중국현대국제문제연구원(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16명, 국제문제연구소(國際問題研究所) 11명, 옌벤대학(延邊大學)과 런민대학(人民大學) 각 10명 등이었다. 이들 8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저자의 연구가 총 138편으로 전체 논문 수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285편 모든 논문에서 저자가 직접 기입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직접 기입한 키워드 중 유사어를 동일어로 전환하여 키워드가 연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물론 키워드는 논문의 저자의 개성과 연구특징을 지니고 있고 유사어를 동일어로 변환하는 것이 저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시킬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목표가 키워드연결망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 키워드에 대한 최소한도 가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처리과정은 <표1>과 같다.

<표1> 유사 키워드 변환표

변환 키워드	유사 키워드	변환 키워드	유사 키워드
中韓關係	韓中關係	美韓同盟	韓美同盟
朝鮮核問題	核問題; 朝核問題	朝美	朝美關係
朝鮮核危機	朝核危機; 核危機; 朝鮮半島核危機; 朝鮮核危機化; 朝核	美韓關係	韓美關係; 韓美; 美韓
核不擴散	不擴散; 防止核擴散	地緣戰略	地緣安全戰略

285편의 논문의 키워드는 각 논문마다 최소 2개, 최대 10개의 키워드가 있었다. 285편의 논문에 달린 저자키워드 총수는 849개 조사였고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총 210개로 전체 키워드의 24.7%였다. 빈도가 큰 상위 10개의 키워드는 '朝鮮半島'가 총 111회 출현으로 가장 많았고, '朝鮮核問題'가 46회, 그 다음으로는 '中韓關係'가 40회, '朝美'가 26회, '朝鮮核危機' 21회, '朝鮮問題'

21회, ‘東北亞安全’ 19회 등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았다.

키워드 중 ‘朝鮮半島’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중국 내에서의 한중관계 연구동향이기 때문에 추출한 논문들이 한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는 키워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많이 출현한 키워드만으로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의 ‘한중관계’ 동향을 해석해 보면 ‘中韓關係’라는 주제 하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동아시아안전의 위기로 인식하고 위기의 원인이 북한과 미국 관계에서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해법 자체도 미국과 북한 관계를 통해 찾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 키워드 연결망분석 결과

3.1 전체 연결망의 구조와 키워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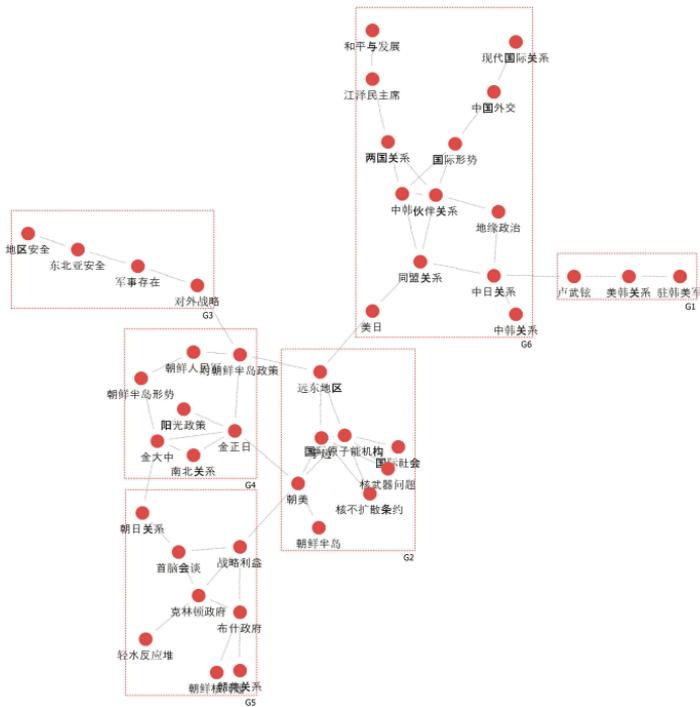
1993~2012년 말까지 중국내 저널에 발표된 “한중관계” 논문의 저자키워드들의 집단분석을 하면 <표2>와 같이 6개 그룹이 형성된다. 이는 전체 키워드 중 논문과 키워드 간 관계를 키워드와 키워드 간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의 전환방법 중 “코사인 유사성(Cosine Similarity)” 방법을 활용하였다.¹⁴⁾ 이렇게 전환된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관계 계수 중 상위 10%를 차지하는 키워드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전체 키워드별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키워드 종류가 너무 많아 그룹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분석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표가 “한중관계” 연구의 주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연관성이 큰 키워드 10%만으로 충분하다.

14) Trevor F. Cox and Michael AA Cox, Multidimensional scaling. (CRC press, 2000); Michael Wolfe, et al. Learning from Text: Matching Readers and Texts by Latent Semantic Analysis, Discourse Processes 25:2(1998), pp.309-336. 본 연구의 모든 연결망 그래프는 Netminer 4.0(www.netminer.com)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다.

<표2> 1993-2012 중국 한중관계 연구 키워드 그룹

1G	盧武鉉; 美韓關係; 駐韓美軍
2G	朝鮮半島; 國際社會; 核武器問題; 國際原子能機構; 寧邊; 朝美; 核不擴散條約; 遠東地區
3G	軍事存在; 東北亞安全; 地區安全; 對外戰略
4G	金大中; 南北關係; 金正日; 對朝鮮半島政策; 朝鮮半島形勢; 朝鮮人民軍; 陽光政策
5G	朝鮮核問題; 輕水反應堆; 克林頓政府; 戰略利益; 首腦會談; 朝日關係; 布什政府
6G	朝美關係; 中韓; 國際形勢; 中韓關係; 和平與發展; 中日關係; 兩國關係; 美日; 江澤民主席; 夥伴關係; 地緣政治; 同盟關係; 現代國際關係; 中國外交

<그림3> 1993-2012년 한중관계 논문 키워드 연결망



전체 키워드 연결망의 중심부를 확대하여 살펴보면, <그림3>에서와 같은 분포를 보인다. 키워드 G1은 盧武鉉, 美韓關係, 駐韓美軍 등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팡슈위(方秀玉), 청위제(程玉潔), 쑤춘리(孫春日) 등의 연구가 있다.¹⁵⁾ <표2>에서와 같이 G2로 묶인 키워드들은 朝鮮半島, 國際社會, 核武器問題, 國際原子能機構, 寧邊, 朝美, 核不擴散條約, 遠東地區 등인데, 장쩌민 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중국의 학계의 연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國際原子能機構' 키워드를 중심으로 核不擴散條約, 朝美, 核武器問題, 國際社會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 스인홍(時殷弘), 차오리친(曹麗琴), 장롄구이(張璉瑰), 마오신청(茹訓城), 가오롄푸(高連福)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¹⁶⁾ 그 중에서 스인홍의 경우 북핵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연관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과 미국관계 하에서 발생한 북핵문제를 중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외교전략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핵위기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국제질서 변화의 실제적 측면과 잠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키워드 G1은 盧武鉉, 美韓關係, 駐韓美軍 등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팡슈위(方秀玉), 청위제(程玉潔), 쑤춘리(孫春日) 등의 연구가 있다.¹⁷⁾ <표2>에서와 같이 G2로 묶인 키워드들은 朝鮮半島, 國際社會, 核武器問題, 國際原子能機構, 寧邊, 朝美, 核不擴散條約, 遠東地區 등인데, 장쩌민 체제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國際原子能機

15) 方秀玉, <新世紀, 新總統, 新挑戰: 盧武鉉當選韓國總統析>, 《國際觀察》2003年 第1期; 程玉潔, <盧武鉉對朝政策“變化”的影響分析>, 《現代國際關係》2003年 第6期; 孫春日, <從《韓國的國家戰略2020》看韓國對今後15年東北亞安全機制的預期>, 《當代亞太》2006年 第11期.

16) 曹麗琴, <核檢查問題與朝鮮半島形勢的發展>, 《世界經濟與政治》1993年 第8期; 張璉瑰, <朝鮮半島核問題縱橫談>, 《國際社會與經濟》1994年 第9期; 茹訓城, <朝鮮半島局勢的反覆及其原因>,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6年 第3期; 高連福, <美國對朝鮮半島的政策>, 《當代亞太》2000年 第3期; 時殷弘, <危險和希望: 伊拉克戰爭背景下的朝鮮核問題>, 《教學與研究》2003年 第5期.

17) 方秀玉, <新世紀, 新總統, 新挑戰: 盧武鉉當選韓國總統析>, 《國際觀察》2003年 第1期; 程玉潔, <盧武鉉對朝政策“變化”的影響分析>, 《現代國際關係》2003年 第6期; 孫春日, <從《韓國的國家戰略2020》看韓國對今後15年東北亞安全機制的預期>, 《當代亞太》2006年 第11期.

構' 키워드를 중심으로 核不擴散條約, 朝美, 核武器問題, 國際社會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 스인홍, 차오리친(曹麗琴), 장롄구이(張璉瑰), 마오쑤청(茹訓城), 가오롄푸(高連福)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¹⁸⁾ 그 중에서 스인홍의 경우 북핵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연관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과 미국관계 하에서 발생한 북핵문제를 중국은 화적 해결을 외교전략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핵위기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국제질서 변화의 실재적 측면과 잠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G3에는 軍事存在, 東北亞安全, 地區安全, 對外戰略 등 한반도 관련 안보분야의 연구가 하나의 주제로 연구되었다.¹⁹⁾ 왕웨이민(汪偉民)과 스용밍(時永明) 등의 연구가 있다. 스용밍의 경우, 북핵문제해결은 동북아의 장기안정과 발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에 관련국들의 노력으로 북한을 동북아지역 발전의 흐름 속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G4는 주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중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다. 金大中, 南北關係, 金正日, 對朝鮮半島政策, 朝鮮半島形勢, 朝鮮人民軍, 陽光政策 등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들인데, 위의 키워드 연결망 <그림3>를 보면 金正日和 金大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陽光政策, 南北關係, 對朝鮮半島政策 등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한반정책을 모색하거나 제안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위메이화(於美華), 위샤오화(虞少華), 친용춘(秦永椿), 팡장핑(方長平) 등이 있다.²⁰⁾ 이 중

18) 曹麗琴, <核檢查問題與朝鮮半島形勢的發展>, 《世界經濟與政治》1993年第8期; 張璉瑰, <朝鮮半島核問題縱橫談>, 《國際社會與經濟》1994年 第9期; 茹訓城, <朝鮮半島局勢的反覆及其原因>,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6年 第3期; 高連福, <美國對朝鮮半島的政策>, 《當代亞太》2000年 第3期; 時殷弘, <危險和希望: 伊拉克戰爭背景下的朝鮮核問題>, 《教學與研究》2003年 第5期

19) 汪偉民, <朝鮮政府的統政策: 歷史與現實>, 《國際觀察》2002년 第4期; 時永明, <朝鮮核問題與東北亞安全>, 《國際問題研究》2003年 第5期.

20) 於美華, <新時期美, 日, 俄對朝鮮半島政策特點及其走勢>, 《現代國際關係》1997年 第1期;

광장평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미친 영향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영역에서 큰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에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친용춘은 한국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한, 한국, 미국, 일본의 전략경쟁을 분석하면서 일부의 주장처럼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낙관적이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5의 키워드는 朝鮮核問題, 輕水反應堆, 克林頓政府, 戰略利益, 首腦會談, 朝日關係, 布什政府 등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그룹의 연구 주제는 미국의 클린턴 정부에서 부시 정부로의 교체기 한반도 정세변화를 다루고 있다.²¹⁾ 대표적인 연구로는 가오렌푸, 주평, 친용춘, 왕지스 등이 있다. 이 중 왕지스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중미관계는 두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먼저 중미양국은 서로 싸우면서 적응하는 하계 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양국 간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양국 관계가 더욱 소원해 지면서 미국이 결국 중국의 전략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두 가능성을 중국정부는 모두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중미관계 개선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에 유리함으로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G6에는 朝美關係, 國際形勢, 中韓, 和平與發展, 中日關係, 兩國關係, 美日, 江澤民主席, 夥伴關係, 地緣政治, 同盟關係, 現代國際關係, 中國外交 등의 다수의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그룹이다. <그림3>에서도 잘 나타나듯, 이 키워드 그룹에서는 中韓, 夥伴關係 두 키워드가 중심에 놓여

虞少華, <朝鮮半島形勢的發展與前景>, 《國際問題研究》1997年 第4期; 方長平, <“陽光政策”與朝鮮半島南北關係>, 《當代亞太》1999年 第5期; 秦永椿, <朝鮮半島安全形勢的變化>, 《和平與發展》, 2000年 第2期.

21) 高連福, <美國改變了對朝鮮半島的政策嗎>, 《當代亞太》2000年 第10期; 朱鋒, <小布什政府的朝鮮半島政策: 調整與前瞻>, 《國際政治研究》2001年 第3期; 王緝思, <中美關係縱橫談: 對中美關係的幾點分析>, 《現代國際關係》2001年 第6期; 秦永椿, <朝鮮半島形勢緩和後的美國東亞安全戰略>, 《和平與發展》2001年 第1期.

있다. 중국외교가 적극적인 동반자관계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동아시아 지정학 상 한미일 동맹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쉬윈지(徐文吉), 진잉지(金英姬), 류진즈(劉金質), 파오젠이(樸鍵一), 스위안화·원인시(石源華·文恩熙)의 연구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는 북핵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국제 규범인 핵의 비확산 원칙을 수용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핵문제의 격화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고 중국의 평화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중국 지식사회에서도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동북아안전과 국제관계로의 관심이 전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 학자들은 한중관계 연구 속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 ‘國際形勢’나 ‘現代國際關係’라는 환경요인과 함께 ‘六方會談’을 통한 북핵문제해결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고려한 외교정책을 주문했다. 그리고 평화발전이라는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한중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을 제안함으로써 중국의 한반도정책 입안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학계의 논의가 한반도정책입안과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장쩌민 시기 저자 키워드연결망

285편 논문의 저자키워드 연결망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각 시기별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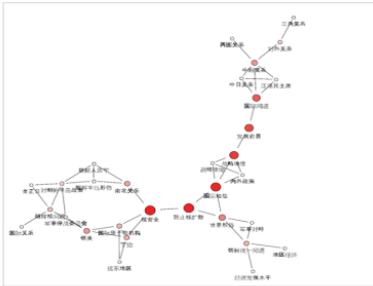
22) 金燦榮, <東北亞新變局與“後金正日時代”的朝鮮半島>, 《現代國際關係》2012年 第1期, pp.3~5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江澤民 1기는 “核安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防止核擴散”, “國際地位”, “世界情勢” 등의 키워드와 연결되어 연구가 진행된 반면, 2기에 들어서면서 연구영역이 분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9.11 사태를 전후하여 동아시아와 중동 등과 관련된 “地域事務”를 다루는 연구와 함께 김대중-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성명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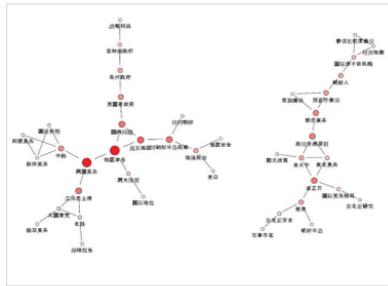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한반도 위기관리 역시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을 고수해 갔다. 이는 현대화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변 국가와 평화적 환경을 조성이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이었으며, 한반도 문제 역시 이러한 외교적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조율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과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의 지식사회의 연구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먼저 장쩌민 1기(1993-1997)에 한중관계 연구의 저자키워드 연결망의 구조를 보면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가 중국 학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핵확산 방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한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다루어 나고 있고 동시에 핵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전략적 입장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이며, 국제적 지위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쩌민 1기의 한반도 연구는 북핵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그리고 주변국가들과의 관계 정립 등과 관련된 연구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그림4> 장쩌민 1기 연결망



<그림5> 장쩌민 2기 연결망



그러나 장쩌민 2기(1998-2002)에 들어오면 <그림5>과 같이 연구의 영역과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 북핵문제에 대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고수하던 중국 정부 보다 앞서 중국의 지식사회에서는 북핵문제를 동북아 안보 문제와 연계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 부시행정부로 바뀌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동북아에서도 미국과 북한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연구 역시 이와 연관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한국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함께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맞춰 한반도 연구 역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와 관련된 연구와 한반도 내의 변화에 대한 연구 영역이 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지식사회가 외교안보연구와 관련 지역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3 후진타오 시기 저자키워드 연결망

장쩌민 2기에 들어서 진행되기 시작한 지역안보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중국의 외교정책의 변화와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의 외교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동아시아 지역 내

는 지역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지역문제가 중국의 국가목표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후진타오 집권 1기에는 지역안정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관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이 발표되고 중국위협론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중일관계와 중미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인한 미일의 대응과 함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움직임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관계를 다루는 논문들 속에 중동문제나 양국관계라는 키워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중국 지식사회에서는 중동상황과 북한상황을 결합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진타오 2기(2008-2012)에 들어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게 된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그리고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상황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중국 학계의 한반도 연구방향은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정권과 동북아 안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북한의 정권교체기의 중국의 안전이익과 안전전략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는데, 이는 연결망상에서 북핵위기에 대한 연구 빈도 낮아지고 북미관계가 ‘停戰協定’이나 ‘朝鮮戰爭’과 같은 키워드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정권의 붕괴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²³⁾

23) 程玉潔, <盧武鉉對朝政策“變化”的影響分析>, 《現代國際關係》2003年6期; 何志工·安小平, <朝鮮半島和平協定與和平機制>, 《東北亞論壇》2008年 第2期; 楊希雨, <關於建立朝鮮半島和平體制的幾個法律問題>, 《國際問題研究》2009年 第4期.

4. 결론

1992-2012년까지 중국 지식인사회에서 “한중관계” 연구의 큰 줄기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및 중국의 대응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점차 동아시아지역의 안보 영역으로 주제가 이동하고 이후 중미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거쳐 현재에는 한중관계 개선 및 조선핵문제 등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볼 때, 중국 내 “한중관계” 연구는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해 지역안보체제를 거쳐 다시 현안문제로 되돌아 온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초반에 한반도 문제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던 중미관계라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한중관계” 연구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의 변화는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사회의 견해를 정책과정에 투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장쩌민 시기 한중관계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와 관련된 연구와 한반도 내의 변화에 대한 연구 영역이 분화되고 있다. 중국 지식사회가 외교안보 연구와 관련해 지역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반면 후진타오 시기에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그리고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상황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중국 학계의 한반도 연구방향은 북한정권과 동북아 안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향후 시진핑 1기에 발표된 논문들의 키워드 연결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가 수집중인 데이터를 일별할 때, 과거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한중관

계 연구는 “한중관계(中韓關係)”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시기 “한중관계(中韓關係)” 키워드는 전체 연결망 상에서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반면 ‘국가이익(國家利益)’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한미관계(韓美關係)’와 ‘대외정책(對外政策)’ 그리고 ‘이명박(李明博)’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들어오면서 ‘중한관계’가 한반도 연구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관찰된다. 이 배경에는 2013년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한중미래비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전략적 소통 강화와 전방위적 협력 등을 확대해 가기로 한데 따른 학계의 반응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기의 ‘한중미래비전 공동선언’이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평가²⁴⁾를 받고 있는 만큼 중국 지식사회 역시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생산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들자면, 연결망상 한반도문제와 핵심이익이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중관계라는 키워드와 한미동맹의 키워드가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안보전략의 측면에서 북한핵을 인식했던 것에서 북핵문제는 이제 중국의 핵심이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중관계는 한미동맹이라는 동북아국제관계 내에서 풀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앞으로의 연구는 시진핑 시기 학계와 전문가들이 어떤 내용의 정책지식을 정책결정과정 에 투입하고 있고, 학계의 연구경향과 각 연구 및 연구자 간 연관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參考文獻 >

- 高재창·조근태·조운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기술경영의 최근 연구 동향>, 《지능정보연구》 제19권 제2호(2013).
- 김용학·김영진·김영석, <한국 언론학 분야 지식 생산과 확산의 구조>, 《한국언론학보》 52.1(2008).
- 김용학·유소영, <한일 비교 연구의 비교: 인문사회 분야 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45:1(2013).
- 김흥규, 《중국 국제정치 분야 싱크탱크 연구: 후진타오 시기를 중심으로》(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0).
- 이희옥, <중국의 신형대국론과 한중관계의 재구성>, 《중국학연구》제67집(2014).
- 최영출·박수정,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5:1(2011).
- 高連福, <美國改變了對朝鮮半島的政策嗎>, 《當代亞太》2000年 第10期.
- 高連福, <美國對朝鮮半島的政策>, 《當代亞太》2000年 第3期.
- 金燦榮, <東北亞新變局與“後金正日時代”的朝鮮半島>, 《現代國際關係》2012年 第1期.
- 方秀玉, <新世紀, 新總統, 新挑戰: 盧武鉉當選韓國總統析>, 《國際觀察》2003年 第1期.
- 方長平, <“陽光政策”與朝鮮半島南北關係>, 《當代亞太》1999年 第5期.
- 孫春日, <從“韓國的國家戰略2020”看韓國對今後15年東北亞安全機制的預期>, 《當代亞太》2006年 第11期.
- 時永明, <朝鮮核問題與東北亞安全>, 《國際問題研究》2003年 第5期.
- 時殷弘, <危險和希望: 伊拉克戰爭背景下的朝鮮核問題>, 《教學與研究》2003年第5期.
- 楊希雨, <關於建立朝鮮半島和平體制的幾個法律問題>, 《國際問題研究》2009年 第4期.
- 汪偉民, <朝鮮政府的統政策: 歷史與現實>, 《國際觀察》2002年 第4期.
- 王緝思, <中美關係縱橫談: 對中美關係的幾點分析>, 《現代國際關係》2001年 第6期.
- 於美華, <新時期美, 日, 俄對朝鮮半島政策特點及其走勢>, 《現代國際關係》1997年 第1期.
- 虞少華, <朝鮮半島形勢的發展與前景>, 《國際問題研究》1997年 第4期.
- 李安方·王曉娟·張屹峰·沈桂龍, 《中國智庫競爭力建設方略》(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0).
- 張璉瑰, <朝鮮半島核問題縱橫談>, 《國際社會與經濟》1994年 第9期.
- 茹訓城, <朝鮮半島局勢的反復及其原因>,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6

年 第3期.

程玉潔, <盧武鉉對朝政策“變化”的影響分析>, 《現代國際關係》2003年第6期.

程玉潔, <盧武鉉對朝政策“變化”的影響分析>, 《現代國際關係》2003年6期.

曹麗琴, <核檢查問題與朝鮮半島形勢的發展>, 《世界經濟與政治》1993年第8期.

朱鋒, <小布什政府的朝鮮半島政策: 調整與前瞻>, 《國際政治研究》2001年 第3期.

秦永椿, <朝鮮半島安全形勢的變化>, 《和平與發展》, 2000年 第2期.

秦永椿, <朝鮮半島形勢緩和後的美國東亞安全戰略>, 《和平與發展》2001年 第1期.

何志工·安小平, <朝鮮半島和平協定與和平機制>, 《東北亞論壇》2008년 第2期.

南京大學 中國社會科學研究平價中心(<http://cssrac.nju.edu.cn/index.html>).

中國知網(www.cnki.net).

Mark Beeson, Hegemonic transition in East Asia? The dynamics of Chinese and American power.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5.01 (2009).

Carl W. Roberts,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s from Texts and Transcrip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7).

Choi Jinho and Hwang Yong-Sik, Patent Keyword Network Analysis for Improving Technology Development Efficienc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83 (2014).

Hongyi Lai and Kang Su-Jeong, Domestic Bureaucratic Politics and Chinese Foreign Polic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3.86 (2014).

Howard D. White and Katherine W. McCain. Visualizing a Discipline: An Author Co-citatio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1972-199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9.4(1998).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on & Company, 2001).

Lee Pei-Chun and Su Hsin-Ning, Investigating the Structure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search through Keyword Co-occurrence and Social Network Analysis. *Innovation* 12.1 (2010),

Linda Jakobson and Dean Knox,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0).

Michael Wolfe, et al. Learning from Text: Matching Readers and Texts by Latent Semantic Analysis, *Discourse Processes* 25:2(1998).

Mustafa Emirbayer, Manifesto for a Relation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1997).

Ronald E. Rice, Christine L. Borgman, and Byron Reeves. Citation Networks of Communication Journals, 1977-1985 Cliques and Positions, Citations Made and Citations Received,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5.2(1988),

Timothy Brook and Michael Frolic, eds. *Civil Society in China* (ME Sharpe, 1997)

Trevor F. Cox and Michael AA Cox. *Multidimensional Scaling*. (CRC press, 2000)

Yufan Hao and Hou Ying, Chinese Foreign Policy Mak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s1(2009).

< Abstract >

A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Korea-China relations” in China:
A Comparison of ‘Keyword-Network’ Jiang Zemin and Hu Jintao Era

Seo, Sang-Min

This paper tried to prove the relation between China’s diplomatic security policy and expert’s academic achievement. The study was made in order to analyze rapidly-changing diplomatic policy of China. This paper mainly discuss about the period of Jiang Zemin and Hu Jintao.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key-words of Chines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CSSCI)-registered theses written about Korea-China relationship and registered in. The study tries to track down the input process of China’s Korean peninsula policy-related knowledg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key-words.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e period of Jiang Zemin, the relationship researches on the Korea-China relationship were parted into two: one about the

international circumstance of East asia and one regarding the change in Korea. In those period, China started to strive more for the region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in Hu-Jintao period, China studied more about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nd the security of East Asia, and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 This can be explained by highly uncertain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derived from the second nuclear experiment of North Korea in 2009 and the death of Kim Jung Il in 2011.

Key Words: policy-related knowledge, China’s diplomatic policy, Korea-China relations, keyword network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4. 30.	2017. 05. 28.	2017. 06. 05.	2017. 06. 15.	2017. 06. 30.